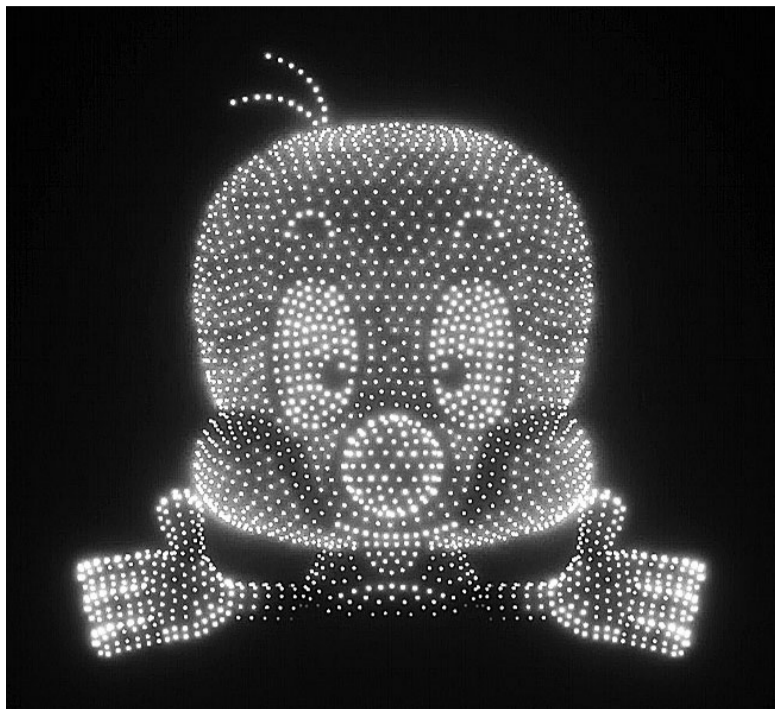


# 순천의 가을밤 드론 2000여대 뜬다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 in 순천’ 다음달 1일 개막...역대급 드론쇼 돌리·외인구단 등 만화 캐릭터 연출 OST 공연·강연·열기구 체험도



다음달 1일 시작되는 '2024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 in 순천'의 개막식에서 펼쳐질 드론쇼의 한 장면인 '이기공룡 돌리' 모습.

드론 2000여대가 내달 1일 순천시 가을밤을 수놓는다.

오는 1일 오전그린광장에서 열리는 '2024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 in 순천(이하 콘텐츠 페스티벌)'의 개막식에서 역대급 규모인 총 2025대의 드론쇼가 펼쳐진다.

순천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이번 드론쇼는 일반적인 틀을 깨고 웹툰·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활용한 콘셉트로 연출되며, 이날 오후 7시부터 시작되는 개막식의 피날레를 장식하게 된다.

드론쇼에서는 ▲이기공룡 돌리 ▲공포의 외인구단(떠돌이까지) ▲월리를 찾아라 등 다양한 캐릭터들이 오전그린광장 상공을 수놓게 돼 벌써부터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푸른 정원과 같은 색을 띤 돌리는 K-레전드 애니메이션답게 자신의 OST에 맞춰 손을 흔드는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예정이다. 이어 '이기공룡 돌리 얼음별 대모험'에 등장하는 마스크트인 가시고기

노란귀 순천시장은 "줄곧 우리가 겪어왔던 콘텐츠 페스티벌에서는 규격화된 장소에서 감해 있던 캐릭터들을 만나게 전부였다. 하지만 이번은 다르다"며 "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모든 콘텐츠를 정원으로 모이게 했다. 정원으로 뛰쳐나온 콘텐츠, 그리고 하늘 위까지 동화나라를 연상케 하는 축제로 꾸며질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개막을 목전에 둔 콘텐츠 페스티벌은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오전그린광장 일원에서 개최되며 ▲술지, 안에는, 김경호가 부르는

도 깜짝 등장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밖에도 순천의 하늘을 배경 삼아 시시각각 변화하는 캐릭터들은 13분여에 걸쳐 차례로 연출된다.

OST 공연 ▲캐릭터 전시·판매존 ▲연사 초청 강연(윤태호 작가, 에릭오 감독) ▲열기구 체험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마련돼 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고흥군, 신규임용 공무원 16명에 관사 제공

주거 안정 통해 청년 정착 돕기

고흥군이 신규임용 청년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과 생활편의 제공을 위해 공직자 공동주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흥군은 이를 위해 옛 케이티(KT) 사택(지상 4층, 8세대)을 지난해 매입하고, 올해 8월부터 설비, 단열, 도장, 가전·가구 등 전체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며 오는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는 고흥군의 2024년 신규임용자 50명 중 80%가 관의 주소를 두고 있어, 이들의 지역 내 거주를 유도하여 인구 유입과 군민 민원 서비스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시책으로, 그동안 직원관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민선 8기에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직원 공동주택을 운영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정비 등 사전 준비를 12월까지 마치고, 내년 신규임용 공직자와 근무 1년 미만 직원을 대상으로 입주자 16명을 선발해 생활공간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2025년 상반기에는 남부권역(도양, 도덕, 금산, 풍양)에도 공동주택 5세대를 마련해 직원 15명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추가로 2027년까지 20세대를 마련해 60여명에게 직원 공동주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신규임용 공무원 중 다수가 주택 임차에 위해 과도한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주거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직원 사기진작은 물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 구례군 제16기 농업인대학 졸업식...50명 배출



축 제16기 구례군 농업인대학 졸업식

2024년 구례군 농업인대학의 졸업식이 지난 24일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 개최됐다. <사진> 이날 졸업식은 김순호 군수를 비롯해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졸업증서 수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농업인대학은 지난 3월 7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자원식물 과정을 운영해, 구례 자원식물인 고사리·두릅·야생화 등의 재배 관리와 병해충 방제, 농작업 안전 재해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졸업생 50명은 모두 전문 농업경영인이 됐으며, 이 중 12명은 약용식물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도 거뒀다.

특히, 우수한 성과를 보인 하태수(구례읍) 씨는 농촌진흥청장상을, 문필자(마산면)·한규진(광의면)·송기오(구례읍) 씨는 군수상을 수상했다.

농업인대학은 농업경쟁력 향상과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목표로 지난 2009년 개설됐으며, 지금까지 21기 과정에서 총 76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업을 완수한 졸업생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면서 "앞으로 전문 농업인으로 구례 농업을 선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 여수시, '탄소포집활용 메가프로젝트' 실증부지 선정

과기부, 전국 5곳...여수산단 탄소중립·미래산업 견인 기대

여수시가 정부의 '탄소포집활용(CCU) 메가프로젝트' 사업 실증부지에 최종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CCU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부지선정 공모 결과, 여수시를 비롯한 전국 5곳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CCU는 발전이나 산업공정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포획해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로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CCU 메가프로젝트는 이산화탄소 공급부터 제품 활용까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전주기 실증을 지원

원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이번 공모에 대비해 지난 8월 전라남도-GS칼텍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여수시는 실증 R&D 추진 계획·사업화 방안 추진 등에 대한 현장평가와 사업 계획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정유화학 공정 내 이산화탄소를 기초화학 물질(올레핀·납사 등), 폴리올 등으로 전환하는 공정 실증을 수행하게 됐다. 또한 연간 4천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여수국가산단에 대한 '저탄소 에너지 전환 기

술' 지원으로 산단 경쟁력과 탄소중립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시는 여수산단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여수가 향후 탄소포집 활용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모에 선정된 부지는 여수시 외에 충남 서산, 강원 강릉·삼척, 경북 포항, 충남 보령이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오는 2026년부터 5년간 약 9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 "글로벌 광양관광 신르네상스시대 열자"

29일 '광양관광 활성화 포럼'

글로벌 광양관광의 신 르네상스시대를 향한 열띤 토론이 펼쳐진다.

광양시가 29일 광양예술총고 소교동B에서 '광양관광 활성화 포럼'을 개최한다.

광양시관광협의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광양 관광의 현재를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관광 분야 전문가와 관계자, 시민,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포럼의 첫 순서인 주제발표에서 정희정 서경대

교수가 '글로벌도시 광양 신르네상스', 유은미 세명대 교수는 '아이언 글로벌 시티 이미지 메이킹'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정희정 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론이 이어진다. 이상민(주)케이피이엘 대표이사, 정석순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 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조인희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교수, 이수연 제주관광대 교수 등 국내 관광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명만 광양시관광협의회장은 "인구소멸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광양 관광

육성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인 이번 포럼이 글로벌 광양관광 신르네상스를 꿈꾸는 민관협력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성수 광양시 관광과장은 "광양은 백운산, 섬진강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제철소, 항만 등 풍부한 산업자원을 보유한 도시"라며 "시의 특색을 융합한 관광정책과 랜드마크형 관광인프라의 밀집을 그려보는 포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번 포럼은 광양 관광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관광협의회(061-792-5301)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곡성 죽곡면 식당 7곳 '나눔천사의 집' 지정

사회적 취약계층에 밀반찬을 지원하고 있는 곡성 죽곡면 식당이 '나눔천사의 집'으로 지정됐다.

죽곡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복지사업인 '정(情)·애(愛)·반(飯)하다' 사업에 따라 취약계층에 밀반찬을 지원해 오고 있는 죽곡면 남양마을의 식당 7곳에 '나눔천사의 집' 현판을 전달했다.

밀반찬 나눔 행사인 '정·애·반하다' 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 등 11가구에 월 2회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참여 식당들은 영양가 높은 식단과 정성 가득한 조리를 통해 취약

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의 모범이 되고 있다.

'나눔천사의 집' 현판을 받은 식당 주인은 "비록 작지만 어려운 이웃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보람되고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이같은 나눔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죽곡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앞으로도 '정·애·반하다' 사업에 더 많은 지역 업체들이 참여토록 독려하고,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곡성=김대성 기자 bigkim2@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도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

보험료 상승의 주범

# 보험금 갇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